

GH00T

고 스텍

As darkness of empty house deepens,
the man's imagination gets brighter

A FILM BY
DAHCI MA



SHORT FILM
competition
FESTIVAL DE CANNES

Written by _ Dahci MA, Directed by _ Dahci MA, Produced by _ Jay JEONG, Cinematography by _ Sunhyuk KIM,
Gaffer _ Kanghun CHOI, Production Design by _ Seohee CHANG, Original Music by _ Youngkyu JANG,
Film Editing by _ Limpyo GO, Sound Recording by _ Myunghun JEONG



SHORT FILM

competition

FESTIVAL DE CANNES

고스트 GHOST

2011 / Fiction / 10min / HD

"빈 집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남자의 상상력은 빛을 발한다"

시놉시스

주민들이 모두 떠난 동네의 한 빈집.

피폐한 몰골의 남자는 어둠 속에 혼자 숨어있다.

남자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살점 없는 닭뼈를 빨지만 굶주림은 가시지 않는다.

남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닭뼈는 인형이 돼 남자를 쫓아다니고

남자는 이상한 환상 속으로 빠져든다...

기획의도

최근 재개발 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소식이 빈번하게 들려온다. 이번 영화의 주인공 ‘남자’는 뉴스 속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지역에서 한 10대 소녀를 강간 살해한 뒤,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 빈집의 어둠 속에서 잠시나마 숨 쉴 여유를 갖게 된 남자는 다른 세계로 빠져든 듯 상상의 나라를 펼치지만, 이내 경찰에게 발각돼 또다시 어디론가 도망친다.



재개발 지역, 부산

이어, 영화 후반부에는 초반부에서 보여졌던 빈집들이 다시 한 번 보여진다. 영화 속 빈집들은 주인공 남자의 모델이 된 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현장이기도 한데, 관객들은 이 영화를 통해 적막감만 남은 현장에 다가가는 동시에, 남자의 구겨진 욕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의 지난 단편 영화들이 그랬듯이 이 작품 역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함을 가지지는 못한다. 누군가의 당부처럼 ‘알거나 이해하는 대상’을 작품으로 만든다고 자신할 수도 없다. 다만,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작은 확신이 나를 이 작업으로 이끌었다.

〈고스트〉 평론

장병원 (코리안 시네마 투데이 Vol.10)

〈고스트〉의 연출자 이정진(필명 Dahci Ma)에겐 사람을 헛갈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천성과 맞지 않아 초등학교 때부터 늘 학교를 나오고 싶었다”는 그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친 뒤 숙원이던 학교 탈출에 성공한다. “고등학교는 가겠지 라는 가족들의 기대와 달리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지라 반쯤은 학교를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 영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 시절 “놀이 삼아 찍었던 영화 비스무리 한 것들”을 양분 삼아 5편의 단편을 연출했는데, 하나 같이 단일한 스타일로 요약되지 않는 배신과 변신의 산물들이다. 다소 간 이단아적으로 보이는 이력의, 이 베일에 쌓인 스물 네 살 감독은 <아바타>와 <트랜스포머> <본> 시리즈에 열광하는, 그래서 “상업영화를 만든다면 철저하게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본위의 영화를 찍겠다”고 다짐하는 중 잡지 못할 취향의 소유자이다.

미래의 작가 9명이 경합을 벌이는 64회 칸영화제 단편 경쟁부문에 포함된 <고스트>는 이정진의 이런 기질이 녹은 괴작이다. 영화는 ‘재개발 철거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말하는 철거촌이란 ‘남은 재래식 가옥을 부순 뒤 그를 대신할 새 아파트가 지어질 곳’이라는 통념적 장소성을 벗어나 있다.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벌어진 강간살인. 주민들과 경찰들이 범인 찾기에 골몰하는 와중에 추적을 뿌리친 범인은 표표히 사라진다. 뉴스를 통해 범인 검거 소식이 전해지지만 여전히 동네에는 소녀의 울음소리가 떠다닌다. <고스트>에서 우리는 유령들을 만난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곳을 파괴한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곳에 은거하는 음산한 유령의 얼굴.

〈고스트〉의 철거촌은 도시 공간의 역학이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공간이 아니다. 야음을 틈탄 범죄의 창궐처럼 <고스트>는 이 괴이하기 이를 데 없는 장소의 공기를 예리하게 잡아낸다. 감독이 스태프들에게 돌린 ‘영화의 방향’을 요약한 글에는 ‘기괴-의문-모호’라는 모토가 적혀 있다. 이 계시적인 이정표가 말하는 것처럼 <고스트>는 한데 섞이기를 꺼려 하는 이질적 요소들이 뭉뚱그려진 그로테스크의 꼴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게 한 사람이 찍은 것이냐”는 평판을 들었을 만큼 스타일의 일관성을 거부했던 이전 단편들과 마찬가지로 이정진은 단일한 성격화가 불가능한 다성성의 용광로로 영화를 끌고 간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채우는 철거촌의 스틸 몽타주는 실험영화

와 다큐의 경계를 서성이며, 강간 살인자가 등장하는 서사의 몸통은 연쇄살인 장르의 클리셰 위에 서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올법한 미로 같은 동네”의 빈집 안에서 뼈다귀 인간이 춤을 추고, 옷자란 제 머리카락처럼 자라나는 욕망을 어찌지 못하는 남자의 가쁜 숨이 곰팡내 나는 벽지 위에 부러진다.



고스트, 2011

인물이나 공간에 있어 현실성을 탈색하고 있지만 <고스트>는 실제 사건이 영감을 제공한 이야기이다. 이정진 감독은 “2010년 한 달 간의, 재개발 지역으로 가득 찬 부산 여행” 경험과 부산에서 벌어졌던 강간 살인사건을 겹쳐 놓고 이야기를 구상했다. 무신경이 만연한 버려진 장소에서 발생한 강간과 폭력. 실제 강간 살인이 벌어졌던 장소에서 촬영함으로써 <고스트>는 끔찍한 사건의 뒤안을 상상하도록 충동한다. 일종의 신비감마저 자아내는 공간에 대한 탐사로서 <고스트>는 한 장소의 역사성과 시간성에 대한 주술적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다. 특별히 사운드 활용에 들인 각고가 역력한데, 표현적인 사운드의 사용(예컨대 울부짖는 괴물의 소리처럼 들리는 오프닝 굴삭기 이미지) 과 이미지를 강화하는 설명적인 사운드, 이미지와의 사운드의 충돌과 대위법 등 시청각적 이미지의 조성이 예사롭지 않다.



고스트, 2011

<고스트>는 하나의 끈을 붙잡고 이야기를 쫓아가는 종래의 영화읽기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명백한 현실과 괴이한 초현실이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고스트>의 화법은 영화 내부에서 영화를 조금씩 흠집 내고 망가뜨리기를 주저치 않는다. “스타일이 없고, 어떤 스타일을 만들지 예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일관성”이라고 말하는 이정진은 답습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탈의 예술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시청각 이미지의 능란한 직조술을 통해 삶의 절단면 만을 보지 않고 이면에까지 말을 걸고자 하는 태도는 이후의 빠른 행보를 기대하게 만든다.

감독 약력



이정진

이정진 감독은 중학교를 중퇴한 후, 영화 만들기를 시작했고, 2005년 <그림에도 불구하고>가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제에서 상영돼 주목 받기 시작했다. 또, 그는 <자연의 신비> (2008)로 뉴욕의 37회 댄스 온 카메라 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최연소 감독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영화를 연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출연

남자
강태영

소녀
진소연

스태프

시나리오 / 연출
이정진

프로듀서
정재근

촬영
김선혁

미술
장서희

음악
장영규

편집
고임표

동시녹음
정명훈

제작사
Real Black Chicken Film

배급

Real Black Chicken Film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4-2번지
서초우체국 사서함 71호
137-030

E-mail: dahcima@gmail.com
Homepage: dahcima.wordpress.com
Phone: +82 10 5657 5975
Fax: +82 31 761 9962

칸 연락처

Leo J. Lee +34 678 205 521
이정진 +82 10 5657 5975

스페인 사무실

Attn: Leo J. Lee
C/ Perales 22 Bis.
Atico A. 28320 Pinto
Madrid
Spain

E-mail: dahcima@gmail.com
Phone: +34 678 205 521